

청소년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글_ 김성애 · 중임여고 보건교사

수능 부정 때문에 나라가 들쭉이고 교육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어떤 문제가 표면에 떠올라야만 급하게 대처하려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

지금까지 청소년 성에 대한 문제도 수면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는 중에 당장 문제가 터진 청소년들을 감싸 안아야 할지, 훈계를 하고 야단을 쳐야 할지를 현장의 교사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문제가 커다랗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위태위태한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이 무엇인지를 수업 시간마다 변민할 수밖에 없다. 성교육을 20년 이상 하고 있지만 항상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는 나는 현장에서 성교육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을 떠올려 방향을 잡아보려고 한다.

정서적 문제가 성문제로 표출되기

학교 성교육의 주체는 누구보다도 보건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성교육을 하기 전 보건실에 자주 오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다고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몸보다는 마음이 아픈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의 대부분은 정서적인 문제를 같이 안고 있다.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면 눈방울이 따라서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막혀서 병으로 나타나고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업 시에는 가족관계나 친구사이의 갈등을 써보게 하고 인간관계 안에 얽혀 있는 감정을 분석해주면 반응이 상당

히 좋다. 자기 마음도 알고 상대 마음도 이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친구나 부모에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기주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성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와 가장 연관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정서와 정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성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관계에서 오는 갈등, 소외감, 외로움, 무력감, 학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성문제로 표출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을 정서나 정신과 통합시키지 않고 하나씩 분리시키게 되면 무책임해지기 쉽다. 특히 외로움을 치유 알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성을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위주로 교육

성교육을 하면서 고민되는 한 가지는 담임교사들이나 타 영역 교사들은 너무 적나라하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들을 것이 없고 모두 아는 내용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나는 기준을 선생님들에게 두지 않고 학생들에게 두고 있다. 학생들은 생리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몇 번 들은 기억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궁금한 것을 쪽지에 쓰도록 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관련된 자료와 동영상, 파워 포인트를 이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한다. 물론 피임, 낙태, 성병, 에이즈교육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미혼모를 줄이고, 문제아를 1%라도 줄이자거나, 피임을 잘 가르쳐서 임신만 피하면 된다는 쪽으로 한정된다면 학생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임신만 안 되면 뽀은 줄지도 된다는 쪽으로 흐를 것이고 우리의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성교제 부분에서 가장 갈등이 많다.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어느 선까지 가능하며 안 되는 선은 어디인지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성적 한계의 설정 및 성적 의사결정 훈련을 포함한 인간관계 훈련이 필요하다.

정확한 성지식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 넓혀

성에 관한 확실한 지식은 성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갈등보다는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믿음 하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성교제 부분에서 가장 갈등이 많다.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어느 선까지 가능하며 안 되는 선은 어디인지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성적 한계의 설정 및 성적 의사결정 훈련을 포함한 인간관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신체접촉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접촉 체감의 법칙은 어떤 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즉 처음에는 뽀뽀에도 지극히 흥분하지만 점점 애무로도 만족이 되지 않고 섹스로 가다. 섹스마저도 이전의 흥분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시작할 때 더욱 매력적인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전성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도록 돕는다. 그것은 배우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혼전에 섹스를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결혼 후 섹스에 대한 흥분은 줄어들게 된다. 규칙위반만이 섹스를 흥분하게 하기 때문에 결혼 후 금지된 영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지금 자신의 선택이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성행위를 해본 적이 있는 아이들도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다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성교육이란 성적 현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구를 감지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대중매체와 친구들의 외적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도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